



기억하라, 투쟁으로!

장애해방열사_단 10주년 기념 토론회
추모, 2020 그 의미를 묻다

1부 <축하행사>

인사말 : 박김영희 대표(장애해방열사_단)

축사 : 박래군 소장(인권재단 사람)

축사 : 이원교 회장(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축사 : 이창훈 집행위원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축사 : 김명운 운영위원(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

축하공연 : 박준(노동가수)

추모영상 상영(장호경 감독)

2부 <토론회> 좌장 : 김병태 회장(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발제1 | 장애해방운동의 역사와 향후 과제 : 김도현 연구활동가(노들장애학궁리소)

발제2 |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의 의미와 과제 : 박김영희 대표(장애해방열사_단)

토론1 | 열사란 누구인가? : 이창훈 집행위원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토론2 | 죽음을 만드는 사회에서 개인적 죽음이란 없다 : 권미정 사무처장(김용균재단)

토론3 | 연고·무연고, 시설·탈시설 장애인의 죽음에 관한 현황과 과제 -고 최현창님 죽음을 중심으로 : 조민제 사무국장(장애인지역공동체)

토론4 | 죽음은 선택이 아닌 사회적 강요였다 : 윤진철 사무처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토론5 | 노점상 장애인 열사의 희생과 투쟁 : 최인기 부위원장(민주노점상전국연합)

3부 <질의응답 및 객석 토론>

인사말 04

축사 05

[발제1] 장애해방운동의 역사와 향후 과제 06

김도현 연구활동가(노들장애학궁리소)

[발제2]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의 의미와 과제 13

박김영희 대표(장애해방열사_단)

[토론1] 열사란 누구인가? 23

이창훈 집행위원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토론2] 죽음을 만드는 사회에서 개인적 죽음이란 없다 26

권미정 사무처장(김용균재단)

[토론3] 연고·무연고, 시설·탈시설 장애인의 죽음에 관한 현황과 과제 -고 최현창님 죽음을 중심으로 30

조민제 사무국장(장애인지역공동체)

[토론4] 죽음은 선택이 아닌 사회적 강요였다 33

윤진철 사무처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토론5] 노점상 장애인 열사의 희생과 투쟁 38

최인기 부위원장(민주노점상전국연합)

메모 42

인사말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추모 10년은

박김영희 대표(장애해방열사_단)

투쟁하는 현장 곳곳에 열사는 살아 있습니다.

장애해방열사_단이 만들어지고 투쟁 현장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열사의 추모제를 지내는 장소는 대부분 장애인 투쟁 현장에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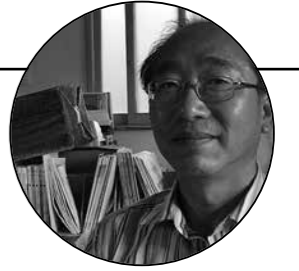
‘서울의 턱을 없애주시오’, ‘복수해달라’, ‘조직하라’, ‘옆도 보고 뒤도 보며 그렇게 함께 갑시다’.... 이 모든 말들은 장애해방열사들의 외침이었고 절규였습니다. 현실의 절박함에서 열사들은 죽음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해방열사_단의 10년은 잊혀 있었던 열사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투쟁하는 현장에서 동지들의 가슴에 열사를 기억하도록 현장으로 소환해냈습니다. 다가올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쟁하였고 그 현장에서 열사들도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였는데, 장애해방열사_단 10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리네요. 어느덧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한 만큼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바꿔내었고, 우리는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토론회로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10년을 함께 지켜보시고 지원해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

축사



김명운 운영위원(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열사_단’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투쟁하다 돌아가신 열사들을 기억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을 함께 전합니다.

지난 시간 ‘단’과 활동에 연대했던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중에서도 초기에 ‘단’을 통해 접했던 장애인 투쟁의 깊은 인상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어느 젊은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전태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전태일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부스러기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사회로부터 무시 받고 천대받는지에 대해 일기를 썼습니다. 저에게 장애인들의 투쟁은 바로 ‘부스러기들의 투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으로 존중받기를 원했던 장애해방열사들의 절박한 마음은, 어린 전태일의 절실함과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장애해방열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쟁과 죽음은 바로 장애운동의 숨결을 지닌 생생한 역사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는 것은 그들이 가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현명함을 동시에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며 살아갔던 빈민해방, 인간해방의 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전 세계적인 자연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스러기들을 더 확대하고, 나머지 민중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그동안 조직해 온 주체적 힘을 가지고 그들에 맞서 인간해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사와 함께, 민중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 길에 ‘단’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장애해방운동의 역사와 향후 과제

김도현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0. 들어가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대중운동은 대중의 해방을 지향한다.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빈민운동은 빈민해방을, 여성운동은 여성해방을, 성소수자운동은 성소수자해방을. 그러나 ‘해방’이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기에, 그 해방의 실현태(實現態)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상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해방이란 계급 철폐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성해방은 가부장제 철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는 또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장애인운동에서 장애해방이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성찰과 답변이 ‘장애해방운동의 역사와 향후 과제’라는 조금은 무거운 제목을 단 이 발제문의 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과거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주로 ‘맹아기(1987년 이전)—태동기(1987~1993년)—대중화 및 단절기(1994~1998/2000년)—부활 및 전성기(2001~2007년)—전환 및 조정기(2008년 이후)’로 구분하여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일차적으로 현장 대중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변혁적 관점을 유지했던 단체의 소멸 및 생성, 즉 진보적 장애인운동 내의 상황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1987~1993년은 울림터 및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약칭 장청)가, 1994~1998년은 통합 전국장애인학우회(약칭 전장협)가, 2001~2007년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약칭 장애인이동권연대)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 그리고 그 이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가 활동해 온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단체들의 흥망성쇠와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는 한국 사회 및 운동 사회 전반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 땅에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씨앗을 뿌린 울림터와 장청이 활동한 시기는 1987년의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이며, 이는 사회변혁 운동의 영향력이 가장 강성했던 때이기도 하다. 전장협이 출범했던 1993년과 소멸했던 1998년은 각각 ‘문민정부’의 출범과 ‘IMF 체제’로의 돌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라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사회변혁 운동이 혼란을 겪고 축소되며, 이른바 ‘시민운동’의 흐름이 영향력을 확장시켜 갔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대중투쟁이 복원된 2001년 이후는 심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및 운동 사회의 위기 속에서 모색되었던 다양한 대중운동의 실험들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자리를 잡은 시기다. 즉 운동 사회 내에서 계급 적대의 중심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정하게 정리 내지 봉합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운동과 의제들이 현실 운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풍토가 형성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서술하려는 것은 아니며, 장애해방운동의 향후 과제를 조명해 보려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운동의 흐름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개관해 보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일정한 생략과 의도적인 강조가 존재함을 미리 밝혀둔다.) 그 이후 한국 사회의 장애인운동이 현재 어떤 지점에 와 있으며, 장애해방을 향한 여정에서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1. 제1기: 노동권 중심의 변혁적 장애인운동의 구축과 단절

(1980년대 말~1990년대 말)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80년대 말 한국 사회의 변혁적 장애인운동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장고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이라는 ‘양대 법안 투쟁’을 그 의제로 하여 출발했고, 그 이후에도 노동권 문제는 울림터, 장청, 전장협으로 이어지는 10년의 운동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울림터 및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약칭 전지대련)는 양대 법안 투쟁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쟁 동력을 형성했으며, 전장협은 재계의 장고법 개악 시도에 맞선 대중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1994년, 1998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고용촉진 결의대회나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장애인 노동권 문제에 주력했다.

다른 한편 장애인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립회관 점거 농성과 에바다투쟁 등이 있었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 대응 투쟁이 보다 중심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청량리 신망애복지회관 건립 반대에 대응해 울림터와 전지대련 등 청년학생들은 1988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 까지 한 달간 청량리 1동 동사무소 점거 농성을 벌였으나, 결국 신망애복지회관은 마석으로 옮겨 건립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양대 법안 투쟁’ 후인 1991년에는 공립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 건립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군청까지 반대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장애계는 ‘천안인애학교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천안인애학교공대위)를 구성해 투쟁을 벌여 입지 승인을 받아 냈다. 천안인애학교공대위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92년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반대에 대한 대응 투쟁을 벌였고, 이후 1994년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운동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중운동과 결합된 열사 투쟁으로는 1984년의 김순석 열사 투쟁과 1995년의 최정환·이덕인 열사 투쟁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김순석의 죽음은 장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학정립단이 주도한 '장례식 투쟁'도 사회구조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의 분신과 공권력에 의한 이덕인의 참혹한 죽음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위축되고 분산되어 있던 민중운동 진영의 결집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장협과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최정환의 분신 이후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공동의 투쟁을 도모하기도 했다.

2. 제2기: 기본권 중심의 전투적 자립생활운동과 부모운동의 성장

(2001~2007년까지)

1998년 전장협이 한국PDI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소멸 직전까지 갔던 장애인운동의 현장 대중투쟁은 2001년 '이동권' 투쟁을 계기로 다시 뜨겁게 부활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은 마치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 다양한 대중투쟁을 폭발시켰다.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장애인 '교육권' 운동, 전체 장애계가 연대체를 구성해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그리고 6시간 반에 걸친 한강대교 기어 건너기 투쟁으로 상징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운동은 장애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법적·제도적 틀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7년의 시기 동안 성취된 네 가지 주요 법적·제도적 변화, 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2005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전국적 시행(2007년)은 서구의 장애인운동이 대략 20여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 낸 것과 맞먹을 정도로 대단히 큰 성과이자 압축적인 변화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이 시기의 활발한 대중투쟁은 제도적 성과만이 아니라 조직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2007년 전장연이라는 상설 투쟁체의 건설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은 2008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건설로 이어졌으며,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거점 조직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교육·생활·운동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야학의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도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결성되었다.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2년 6월 발표된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 관리 대책'(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들의 참혹한 인권 유린과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2003년 말 결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조건부시설공대위), 2006년 1월 결성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시설인권연대), 2006년 7월 결성된 '성림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약칭 성림공투단)은 이러한 시설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중심 틀이 되었다. 다른 한편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반대 활동이 있었고(2003년 말~2004년 초),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철폐, 지원고용 제도와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등이 420투쟁 요구안으로 제출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투쟁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열사 중에서는 중증장애인이자 여성이자 빈민이었던 최옥란 열사의 삶과 투쟁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2001년 말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했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투쟁 이후 2002년 봄 그녀는 유명을 달리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농성단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기본생활권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약칭 기초법연석회의)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갔고, 이 연석회의는 2004년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현 빈곤사회연대)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진보적 장애인운동 진영은 2005년부터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에 맞추어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 제3기: 개별적 권리를 넘어선 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쟁

(2008년 이후)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등급(1~6급)과 가구 소득수준(수급권자, 차상위 120%, 150% 등)이 각각 X축과 Y축으로 기능하면서, 그 좌표값에 따라 복지의 내용이 획일적으로 결정·제한되는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장애 관련 서비스와 급여가 매우 빈약했던 과거에는 잘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되고 2010년 하반기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이 양자가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현재 64%에 달한다) 그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장연은 2010년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 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고, 이후 2012년 8월에는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구성하여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기약 없는 농성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2012년 10월 김주영 씨가 사망했고, 11월에는 박지우·박지훈 남매가 불타 죽었으며, 2014년 4월 송국현 씨가 또 불타 죽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는 근육장애인 오지석 씨가 연결 부위가 빠져버린 호흡기를 바로 잡아줄 이가 곁에 없어 죽어갔다. 부당한 수급권 탈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박진영 씨가 2013년 목숨을 끊었고, 2014년에는 송파 세 모녀가 생을 달리하기도 했다. 이 억울한 죽음에 맞서 싸우고 거리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농성 투쟁은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간 진행되었다.

이러한 끈질기고도 치열한 투쟁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각각 별도로 구성되었고, 장애등급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폐지의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장애인운동이 요구해왔던 실질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고, 2020년 8월 최종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서도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치되고 만다. 이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이어 조직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은 여전히 거리에서 농성과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석암비대위)와 성림공투단이 함께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약칭 탈시설공투단)을 결성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농성 투쟁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시설 민주화를 넘어선 탈시설 투쟁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특히 2009년 여름 시설에서 나온 석암비대위 활동가 8명(일명 마로니에 8인)이 마로니에공원과 국가위원회에서 벌인 62일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신설, 자립생활가정 및 체험홈

도입, 퇴소정착금 제공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후 서울시는 2013년에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인원 3,000명의 20%인 600명을 5년간 탈시설시킨다는 ‘탈시설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해 추진했으며, 2019년 마련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탈시설 목표 인원을 800명으로 확대했다.

다른 한편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전장연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85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농성을 진행했는데, 이 농성의 주요 요구안 중 하나가 공공시민노동 개념을 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고용노동부와 협의 속에서 마련된 동료지원가 일자리는 성과와 실적 중심의 취업지원 사업(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 왜곡된 정책 속에서 설요한 씨가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러나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성과로 서울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260개)는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3대 주요 직무로 하고, 최종중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며,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투쟁이 각 지자체와 중앙 정부로 확대된다면, 장애인노동권 투쟁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기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제2기 (2001~2007년까지)	제3기 (2008년 이후)
핵심 의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이동권, 교육권, 활동보조서비스, 장치법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시설)	남비현상 대응 투쟁	시설민주화 투쟁	탈시설
(노동)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사실상 공백	공공시민노동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주요 주체	경증 신체장애인	중증신체장애인, 장애인 부모	중증신체장애인, 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운동 담론	계급 담론	자립생활 담론	장애학 담론 (사회적 장애 모델)

〈한국사회 장애해방운동의 흐름(요약)〉

4. 향후 과제: 시설사회의 철폐와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구축

이 글의 서두에서는 ‘장애인운동에서 장애해방이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장애해방의 ‘잠정적’ 실현태를 시설사회의 철폐와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구축(장애 배제적 노동사회의 철폐)으로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노동 및 시설 문제가 ‘장애인’(the disabled)이라는 범주 자체의 생성과 그 역사적 기원에서 맞물려 있는 매우 근본적인 의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형성기, 즉 본원적 축적기는 토지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공장 체제의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못했던 소위 ‘부랑자’(vagabondage)가 대량으로 양산된 시기였다. 그리고 자율적이며 유연한 형태의 노동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칼 맑스가 『자본』(Das Kapital)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자면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랑자가 되었는데,¹⁾ 이때 등장한 것이 우리가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배울 때 자주 들 어본 구빈원(救貧院)이라고 하는 곳이다. ‘구빈원’을 한영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개의 영어 단어가 나온다. 하나가 ‘poorhouse’이고, 다른 하나가 ‘workhouse’이다. 그리고 구빈원이 운영되었던 시기에 실제로 더 많이 쓰 였던 단어는 ‘workhouse’였다. 즉 구빈원이란 실상 부랑자들을 일정한 훈육의 과정을 거쳐 임노동 관계로 밀 어 넣기 위해 국가가 운영했던 강제노동 수용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구빈원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효과적인 훈육과 나태의 방지를 위해서 수용자들을 분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핵심적인 목표는 일할 수 없다고 간주된 사람들을 일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부 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구빈원 밖에서의 구제 조치(원외 구제)를 폐지한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The Poor Law Amendment Act)은 빈민들을 분류함에 있어 아동, 병자, 광인, 심신결함자(defective), 노약자(the aged and infirm)를 특별히 중요한 다섯 개의 범주로서 설정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the disable-bodied’(일을 할 수 없는 몸)라는 꼬리표를 부여했으며,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잔여적인’ 방식으로 ‘the able-bodied’(일을 할 수 있는 몸)라는 꼬리표를 부여하고 노동 능력자로 간주했다. 노동 능력자들은 그대로 구빈원에 남겨졌고, 아동들은 근대와 더불어 출현한 공교육 시스템의 학교에 맡겨졌으며, 아동을 제외한 나머 지 네 가지 범주의 사람들은 별도의 시설로 보내졌다. 구빈원은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주로 (공업)도시 근처에 지어졌지만, 그 별도의 시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 면 바로 이 네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장애인을 구성하게 되며, 그들이 보내졌던 별도의 시설이 바로 장애인 수 용시설의 기원이 된다. 즉, 일할 수 있는 몸을 선별하기 위해 일할 수 없는 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이로 부터 오늘날과 같은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발명’(invention)되었던 것이다.²⁾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1980년대 말 변혁적 장애인운동을 태동시킨 1세대가 노동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 맥락과 이유를 어렵잖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 든 장애인권 및 장애인복지 관련 지표들이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³⁾ 35% 내외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 않은 현실도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⁴⁾ 즉 미국 사회보장법이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는 것에서 확인되듯 능히 일할 수 있는 자는 그 정의상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의’ 노동권이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일종의 형용모순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이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노동 시스템 의 근본적인 ‘변환’(transformation)을 수반할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 할 수 있다.

1) 칼 맑스, 『자본론 1-해』(제2개정판), 김수형 옮김, 비봉출판사, 2001, 1009쪽.

2) Michael Oliver, The Politics of Disable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 32~34; 또한 ‘장애인’이라는 개념/범주가 발 명되는 좀 더 구체적인 사회사에 대해서는 Sarah F. Rose, No Right to Be Idle: The Invention of Disability, 1840s-1930s,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7을 참조하라.

3) 예컨대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0.61%로 OECD 평균 2.11%의 약 1/4 수준이며,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뒤에서 세 번 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윤화 외, 『2018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92쪽).

4)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의 2011 EU Labour Force Survey(2014)에 따르면,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15~64세) 평균 고용률은 47.7% 로, 한국의 49.0%보다 오히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윤화 외, 『2018 장애통계연보』, 288쪽). 여기서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이 국내 통계 자료 보다 1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을 64세 이하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의 의미와 과제

박김영희 대표 | 장애해방열사_단

시설 문제 역시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장애인을 통치하는 방식과 매우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시설사회’를 ‘장애인의 삶의 공간과 양식(style)을 비장애인의 세계와 분할·격리하는 시스템을 지닌 사회’로 정의한다면, 수용시설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때로는 물리적 시설이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⁵⁾ 그와 같은 분할·격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시설사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탈시설/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모범 사례로 꼽는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리고 이탈리아도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의 탈시설사회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들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과 정신병원이 없을 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과 정신병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운동이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거쳐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1기 장애인운동은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제기했으나,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 내에서 장애인의 지분을 확보—고용할당제를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참여—하는 전략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할 듯 보인다. 또한 시대적 조건으로 인해 경증신체장애인 주체들이 중심이 되었기에, 중증장애인 주체들(중증신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중심적 의제로 삼아 대중투쟁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기 장애인운동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권, 교육권, 차별금지, 사회서비스 등의 기본권 영역에서 급속하고도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냈고, 운동의 주체 역시 중증신체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밑바탕이 되었기에 3기 운동에서는 운동의 주체를 좀 더 확장하면서 시설 문제에서는 ‘넘비현상 대응 투쟁’과 ‘시설 민주화 투쟁’을 넘어선 ‘탈시설 투쟁’으로, 노동 문제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노동권의 공적 보장’을 제기하는 단계로 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정 어려운 싸움일 수 있다. 시설사회의 철폐와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구축이 장애해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두 사안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의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탈시설 투쟁이 시작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요구에 대해 이 사회가 보여주는 무관심, 비아냥거림, 적대적 반응은 그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전장연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① 자립생활센터가 주축을 이루는 기층 조직의 운동성을 굳건히 하고 ② 거리에서의 투쟁에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담론 투쟁을 방기하지 않고 그 기반을 확장하며 ③ 한국 사회 전반의 진보를 위한 연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가는 결국 이 자리에 모여 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 할 것이다.

5)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나라,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기 있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은 사회와 전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예외적 공간이기보다는, 장애인의 삶을 다루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속성이 표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금 다른 맥락에서는,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었지만 아직 시설 정책조차 도입되어 있지 않은 (최)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0. 들어가며

장애해방열사_단(아래 열사단)이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니 열사들을 위한 추모제와 희생자의 장례식 등이 있었다. 열사단을 창립할 때, 열한 분의 열사를 모시며 시작했는데 지금 약 마흔 분의 열사와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열사단의 사무실 한켠에는 장애해방열사·희생자 표를 붙여놓고 매 기일을 기억하려 하고 있다. 어떤 분은 그나마 있던 연락처마저 차마 지울 수 없어 저장되어 있고, 어떤 분은 연락처가 없어도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어떤 분의 추모제에는 서로의 추억을 꺼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과는 공유하는 추억이나 기억은 없지만 그를 기억해야만 했다. 지난 10년의 모든 활동은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한 세월이었다. 영정사진은 늘 한결같은 모습이고 하얀 국화와 제기들이 놓인 분향소, 울려퍼지는 추모노래 속에 줄을 서서 헌화하는 그러한 장면들에 익숙해지며 10년을 지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 열사단의 역할과 의미,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열사 정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적어보려 한다.

1. 장애해방열사_단의 역할과 의미

1) 장애해방열사_단의 창립 배경

2002년 3월 3일 새벽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던 정태수 열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후배 양성을 위해 두 달간 진행했던 장애인청년학교 수료식을 겸한 1박 2일 모꼬지 뒤풀이 자리였다. 그해 8월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가 출범했다. 장애인계의 첫 추모사업회였다. 추모사업회는 정태수 열사의 정신을 잇기 위해 매년 으뜸 활동가에게 주는 ‘정태수상’ 시상, 추모음반 ‘태수야1, 2’ 제작 발매, 20여년 진보 장애인운동을 정리한 ‘한국사회 장애인중운동의 역사’(이후 ‘차별에 저항하라’로 발간) 제작 등의 활동을 한다.

정태수 열사의 사망 이후 최옥란(2002), 이현준(2005), 박기연(2006), 정정수(2006), 박일수(2009) 등 많은 열사의 죽음이 이어진다. 이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태수 열사뿐만 아니라 정태수 열사 이전에 돌아가신 김순석(1984), 최정환(1995), 이덕인(1995), 박흥수(2001) 열사를 포함해 이후 돌아가신 열사들의 추모제를 치르고 정신을 계승할 단위의 필요성을 수차례 논의했다. 이에 2009년부터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드디어 2010년 3월 26일 열사단은 당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에서 창립총회

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박김영희 대표가 초대 대표를 맡고 김도경 활동가가 사무국장을 맡았다. 이후 국가 등 외부 지원 없이 개인 및 단체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기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게 단체를 유지해왔다.

2) 장애해방열사_단의 역할 및 사업

열사단은 출범 이후 주요한 사업으로 △각 열사·희생자 추모제 △326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기획 및 진행 △장애해방열사배움터 개최 △다음카페, 페이스북 자료 축적 등 열사 자료 아카이빙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밖에 장애해방열사 열사력 제작, 매달 열사·희생자 카드뉴스 및 웹자보 발행, 각 단위/지역별 장애해방열사 교육 등도 진행해왔다.

사업	시기	내용
각 열사·희생자 추모제	2010년~현재	김순석(1984) 열사부터 최근 고 황정용 동지(2019)까지 약 40여분의 장애해방열사·희생자의 추모제에 직, 간접적으로 기획 및 지원.
326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2010년~현재	초기에는 12분의 장애해방열사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진행. 이후 40여분으로 확대하면서 시기별, 주제별로 추모 내용 기획함.
장애해방열사배움터	2015년 ~ 현재	추모제를 넘어 열사·희생자의 정신과 죽음의 의미를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전파하는 교육사업. 특강과 마석 모란공원 참배 등을 포함해 총 9강으로 진행.
열사 자료 아카이빙	상시	다음카페(http://cafe.daum.net/sadddan),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adddan2009) 등에 열사·희생자들의 자료 축적.
기타		열사력 제작(2017년~현재), 매달 열사·희생자 카드뉴스 및 웹자보 발행, 각 단위/지역별 장애해방열사 교육 등

〈 장애해방열사_단의 주요 사업 〉

△ 현장에서의 열사·희생자 추모제

출범 초기 열한 분의 장애해방열사 추모제를 시작으로 우동민, 김주영, 송국현, 이재진, 최근 황정용 동지까지 많은 동지의 장례를 치렀고, 현재 40여 분의 장애해방열사·희생자의 추모제에 직, 간접적으로 기획 및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84년 9월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시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신 김순석 열사, 살인적인 노점 단속에 분신으로 항거하신 최정환 열사, 생존권 투쟁 중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한 이덕인 열사, 현장 투쟁과 후배 양성에 헌신하다 돌아가신 박흥수 열사 등은 추모 단위의 부재 등으로 열사단에서 주도적으로 추모제를 치러왔다.

열사단의 추모제 기조는 ‘현장’이다. 장애인 문제도 사회적이지만, 우리가 추모하는 열사·희생자의 죽음 또

한 사회적이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사회적 상황에 떠밀려 떠나간 이들을 우리끼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바꿔나가기 위해 ‘현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추모제 및 장례식을 농성장이나 투쟁 현장에서 진행해왔다.

△ 장애해방열사배움터

추모단체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이 추모제이긴 하지만 추모제를 넘어 열사의 정신을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전파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열사단은 지난 2015년부터 5회째 장애해방열사배움터를 진행해왔다. 배움터는 장애해방열사·희생자들의 삶과 송고한 정신을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를 함께 다지는 자리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넘어 당시 사회적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적인 의미와 더불어 사회적 죽음으로서의 의미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매년 8~9강에 걸쳐 진행했고 5회(2019년)까지 약 120여 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가 배움터를 수료했다. 배움터는 각 단체의 신입 활동가 등이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서 장애해방열사·희생자들의 삶과 정신을 되새김으로써 비장애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운동의 전망을 찾아가는 좋은 교육이 되었다.

강사로는 김명운 전 의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박김영희 대표(열사단), 김병태 회장(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박경석 회장(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임소연 사무총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진숙 지도위원(민주노총), 고병권 연구원(노들장애학궁리소), 김승호 대표(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김도현 연구원(노들장애학궁리소) 등이 함께했다. 초기에는 열사단의 독자적 사업으로 진행했고, 3회부터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한편,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배움터에 참여가 어려운 전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천, 광주, 부산 등 지역에서 2~4강 정도로 축약해 배움터를 진행했다.

△ 326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아래 합동추모제)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시기인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매해 조직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전국장애인대회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 △420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등을 주요 행사로 진행하고 해당 연도에 맞는 각 투쟁사업을 진행했다. 합동추모제는 420공투단 내에 추모제 기획팀을 두고 준비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정태수 열사추모사업회, 장애인문화공간 등의 활동가들이 결합했다.

2010년 열사단이 출범한 뒤에는 ‘기억하라, 투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420공투단 내에 합동추모제 기획 및 진행을 함께해왔다. 초기 합동추모제는 김순석(1984), 최정환(1995), 이덕인(1995), 박흥수(2001), 정태수(2002), 최옥란(2002) 열사 등 여섯 열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최옥란 열사 기일인 3월 26일에 개최했다. 열사단 출범 이후에는 이현준(2005), 박기연(2006), 정정수(2006), 박일수(2009), 이인석(2009) 열사 등이 추가되었고, 현재는 40여분의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로 확대되었다. 합동추모제는 초기에 각 열

사의 삶을 연극이나 노래 공연, 추모영상 등을 통해 내용을 담았으나, 이후 40여 명까지 확대하면서 시기별, 주제별로 각 열사·희생자 추모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합동추모제는 각 열사·희생자들의 삶과 정신을 영상, 노래,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담아냄으로서 그분들의 메시지가 현재를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열사 및 희생자의 정신계승이 박제된 형태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나는 언어가 되도록 했다.

△ 자료 축적 및 카드뉴스 등

장애해방열사·희생자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축적은 다음카페(<http://cafe.daum.net/sadddan>),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adddan2009)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카페에는 현재 34분의 열사·희생자가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다. 폴더 안에는 △약력 △본인 글 △사진 △동영상 △추모글 △언론자료 등의 꼭지로 정리되어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시기별로 열리는 추모제의 사진과 글, 영상 등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매월 발행하는 카드뉴스는 현재까지 약 20여분의 장애해방열사·희생자의 삶과 정신을 소개했다. 또한 각 열사·희생자 기일에 맞춰 추모제 웹자보를 발행했다. 특히 매달 한 번 발행하는 카드뉴스는 각 열사와 희생자의 삶과 죽음, 그 의미 등을 쉽게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달에 기억해야 할 열사, 희생자를 미리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밖에 지난 2017년부터 장애해방열사·희생자들의 유언이나 남긴 글 등과 함께 각 기일을 알리는 열사력 ‘기억하라, 투쟁으로!’도 제작, 보급해왔다.

3) 성과와 과제

위와 같은 장애해방열사_단의 여러 역할과 사업으로 진보 장애인운동이 장애해방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현장에서 계승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진보 장애인운동의 역사 및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함으로 장애인운동 당사자들의 주체성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1) 진보 장애인운동 역사 속의 열사 발굴

진보 장애인운동 태동기 전후, 사회구조적 모순에 저항해 산화해간 열사가 존재했다. 이동권과 생존권을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김순석 열사,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해 저항한 최정환, 이덕인 열사 등이다. 김순석 열사는 1984년, 최정환, 이덕인 열사는 1995년에 산화했다. 그러나 이후 진보 장애인운동 뿐만 아니라 진보 사회운동 내부에서도 위 열사들에 대한 추모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열사단이 창립된 후, 역사적 사료를 찾아가며 세분 열사들에 대한 삶과 정신에 관한 자료를 발굴했고, 열사들의 추모제 또한 매년 진행되었다.

(2) 열사 드러내기

열사단의 활동은 열사에 대한 의미를 장애인운동 내에 재구성하는데 있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열사에 대한 인식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진영만의 이야기인듯하게 장애인계와는 상당히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김순석 열사부터 우동민 열사까지 열두 분의 장애해방열사를 매년 열리는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추모제에 안장하면서 ‘열사’에 대한 인식이 장애인계 내부로 확장했다. 그리고 열사란 민족, 국가, 노동, 학생 등이라는 기존의 비장애 중심 범주에서 사회적 타살, 정책적 타살, 정상성에 의한 타살이라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범주로 확장이 되었다. 또한 장애해방열사배움터를 진행하면서 비장애인 중심의 열사 세계관에 균열을 내고 장애인운동 내에서의 열사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들이 스스로 존경할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장애인운동 내부에서 찾을 수 있게 한 부분은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확장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열두 분의 열사 이후 30여 명 동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세밀하고 다각화한 자료 확보와 평가가 아직 미약한 부분은 과제로 남는다.

(3) 사회적 죽음과 저항

열사단 창립 이후에도 수많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진보 장애인운동 과정에 함께하다 순직한 동지들도 있었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에 희생당한 죽음은 더 많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에 이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해방열사_단을 비롯한 진보 장애인운동은 이 죽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저항했고, 장례투쟁 등을 통해 사회를 한 발자국씩 변화시켰다. 억울한 죽음을 사회구조적 모순을 바꾸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갔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귀중하다는 명제를 예전보다 더 각인하는 저항으로 발전시켰으며 투쟁으로 이끌었다. 특히 2012년 고 김주영의 죽음, 2014년 고 송국현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투쟁으로 승화시켜 제도를 바꿔낸 측면은 이러한 귀중한 목숨들에 대한 존중이었다.

(4)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

배움터 등의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존엄한 주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성과이다. 특히 개인적인 존재인 개별자들이었던 열사들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주체로 개인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또한 역사적 주체로까지 확장해냈다. 개인의 삶의 의미와 인간해방, 장애해방의 의미, 가치를 일치시킨 존재이다. 때문에 열사단의 교육은 시대 배경과 역사를 함께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개별 당사자들의 사회구조적인 의식을 심화시키고 선배 열사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던 역사를 통해 개별의 주체성을 사회적 주체로 확장했으며, 이는 운동을 하는 개인의 자긍심으로 발전했다.

한편 자긍심은 소수자성을 지닌 사람이 다수자의 사회에 편입할 때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소수자성이라는 것은 종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성을 가진 존재로 편입됐을 때,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투쟁성은 현격히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세계에 편입될 경우에도 소수자성을 갖고 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연속적이다. 열사의 정신으로 제도를 조금씩 바꿔가며 사회에 편입되더라도 당시 활동하다 돌아가신 동지들의 과제는 아직 현장에 살아남아 있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2. 장애해방운동에서의 열사/희생자

〈장애해방열사·희생자 표〉

순번	열사 희생자	떠난 날	당시 나이	당시 상황
1	김순석	1984. 9. 19	34	편의시설미비에 항의, 유서 남기고 자결
2	최정환	1995. 3. 21	37	극악한 노점단속에 항의, 서초구청에서 분신
3	이덕인	1995. 11. 28	29	인천 아암도에서 망루투쟁 중 의문사
4	박흥수	2001. 7. 23	44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다 질병으로 사망
5	정태수	2002. 3. 3	35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다 심근경색으로 과로사
6	최옥란	2002. 3. 26	37	이동권, 수급권 투쟁 중 심장마비로 사망
7	이현준	2005. 3. 16	40	장애인운동 중 활동보조인이 없어 수면중 사망
8	박기연	2006. 6. 2	48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중 철로에 뛰어내려 사망
9	정정수	2006. 10. 23	39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중 과로사
10	박일수	2009. 12. 4	67	경기북부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등 활동 중 사망
11	이인석	2009. 3. 21	61	탈시설 후 자립생활운동 중 사망
12	우동민	2011. 1. 2	44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등에 헌신하다 질병으로 사망
13	김공대	2011. 12. 8	3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중 교통사고로 사망
14	김주영	2012. 10. 26	34	탈시설 자립생활, 미디어운동에 헌신하다 화재로 사망
15	박지우	2012. 11. 7	13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
16	박지훈	2012. 12. 13	11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사망
17	이영주	2012. 4. 6	29	장애인운동 중 사망
18	장성아	2013. 1. 26		원주귀래사랑의집에서 탈시설 후 채장암으로 사망
19	지영	2013. 4. 16	46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등에 헌신하다 질병으로 사망
20	설안순	2013. 6. 12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다 심장·호흡기 장애 합병증으로 사망
21	박진영	2013. 7. 3	43	장애 의무 재판정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자결
22	조성배	2013. 9. 5	43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다 질병으로 사망
23	김준혁	2013. 11. 25	33	장애인운동 등에 헌신하다 맹장파열 복막염으로 사망
24	송국현	2014. 4. 17	53	탈시설 후 자립생활 중 화재로 사망
25	정현성	2014. 5. 23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다 부양의무제에 항의하며 자결

순번	열사 희생자	떠난 날	당시 나이	당시 상황
26	박흥구	2014. 12. 24	40	장애인운동에 헌신하다 화재로 사망
27	최종훈	2014. 12. 31	53	탈시설 후 자립생활 중 질병으로 사망
28	이재진	2015. 1. 28		인천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의문사
29	곽정숙	2016. 3. 21	55	장애인운동, 시민운동에 헌신하다 질병으로 사망
30	김호식	2016. 4. 7	44	장애인운동 중 질병으로 사망
31	박현	2016. 12. 22	35	탈시설 후 자립생활 운동에 헌신하다 폐렴합병증으로 사망
32	정성진	2017. 9. 24		장애인운동 중 질병으로 사망
33	김종희	2017. 9. 28	42	장애인운동 중 질병으로 사망
34	권오진	2018. 6. 17	48	탈시설자립생활중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질병이 악화되어 사망
35	이창선	2019. 5. 12	36	탈시설자립생활 중 폐혈증으로 사망
36	박정혁	2019. 6. 22	50	탈시설자립생활운동에 헌신하다 암투병중에 사망
37	황정용	2019. 7. 13	61	탈시설자립생활운동 중 지병으로 지병
38	설요한	2019.12. 05	27	동료지원가로 일하다가 불합리한 노동으로 인해 자결
39	한민희	2020. 02. 22	24	탈시설 후 자립생활하다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
40	장성희			원주귀래사랑의집, 2014년 1월 23일 장례 치름
41	이광동			원주귀래사랑의집, 2014년 1월 23일 장례 치름

1984년 김순석 열사가 ‘서울거리에 턱을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했다. 열사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 등에 치열한 고민을 했고, 특히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당시 너무도 열악했던,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장애인 이동권으로 꿈이 좌절됐고, 결국 자결했다.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남겼던 다섯 장 분량의 유서는 열사의 치열했던 삶과 절실함을 보여준다. 진보 장애인계는 김순석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년 동안 기일 즈음에 시외버스 이동권 투쟁을 진행했다. 투쟁 결과 2019년 말,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 시범사업이 도입되었다.

1995년 최정환 열사와 이덕인 열사의 죽음이 발생한다. 두 열사는 노점을 통해 장애인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려고 살아왔다. 최정환 열사는 서초구청의 극악무도한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몸에 불을 질러 자결했고, 죽기 직전 ‘400만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죽어도 좋다. 복수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긴다. 이덕인 열사는 인천 아암도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자행된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골리앗 투쟁을 진행했고, 아암도 앞바다에서 두 손이 끈으로 묶여 온몸이 피멍이든 채 발견된다. 이덕인 열사의 의문사 명예회복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0년대 초 박흥수, 정태수 열사 등이 질병으로 사망한다. 박흥수, 정태수 열사는 전장연 전신인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의 조직을 주로 담당했다. 특히 박흥수, 정태수 열사는 장애인의 문제가 노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에 노동을 통한 사회 참여로 장애해방을 이뤄야 한다는 기조로 투쟁의 선봉에 섰다. 장애인 노동권 투쟁은 지난 2017년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노동조합이 창립하고 최근 서울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행 등 확산하고 있다.

2012년 10월, 고 김주영 동지가 집에 난 화재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화마에 목숨을 잃는다. 김주영 동지는 2000년대 초부터 자립생활운동, 미디어 운동 등에 헌신해왔다. 그녀는 당시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장애인이었다. 그러나 당시 활동지원은 24시간 보장되지 않았고, 전장연 등 진보 장애인운동에서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을 폭발적으로 확장했고, 그 투쟁으로 인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한 걸음 더 보장될 수 있었다.

고 김주영 동지가 화마에 산화해간 즈음,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고 박지우, 박지훈 남매 또한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 생계를 위해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합선으로 불이 났고, 두 남매가 연기에 질식사 차례로 숨졌다. 그들의 죽음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투쟁의 불씨를 지폈고, 그로 인해 미약하나마 2014년 발달장애인권리 보장법이 제정됐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8년간 생활하다 자립한 지 6개월 만에 고 송국현 동지가 집에 난 화재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송국현 동지는 언어, 지체 중복 3급 장애 때문에 당시 장애 2급까지만 지원됐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일정 시간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의신청은 2차례 기각당했고, 3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온 주말에 화를 입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8일간의 장례투쟁, 그리고 매일 보건복지부장관 집 앞 집회 등 치열한 장례투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3급까지 확대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고 김주영, 송국현 동지의 사례처럼 죽음의 종류와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로 승화하는 과정일 것이다. 죽음을 당했다는 피동적인 삶을 넘어 살아남은 자들이 투쟁을 통해 사회구조를 바꾼 주체적인 삶으로 확장했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한편, 현재까지 진보 장애인운동 내에서는 열사에 대한 규정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2011년 1월 2일 돌아가신 우동민 열사의 안장 이후 열사 추대는 중단된 상태다. 어떤 측면에서는 추모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열사단이 그 주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열사단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개별 추모단위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기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2017년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에 장애해방열사정신계승위원회를 제안하고 구성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열사 추대에 관한 건이었다. 이 문제는 열사단과 전장연 열사위, 그리고 개별 추모단위 중 적절한 인원으로 ‘(가칭)장애해방열사추대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3. 장애인운동에서 열사 정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애인운동 외 다른 운동진영의 열사 정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질적 민주화의 실현을 지향한다. 민주화의 실현은 협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사회경제적 평등이 이룩된 사회를 말한다. 열사 정신은 변할 수 없지만, 시기에 따라 우선 과제는 차이가 발생한다. 7~80년대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열사들의 투쟁은 90년대를 거치며 각 사회영역의 부문별 투쟁으로 발전해왔다. 장애인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등 구체적 사안들로 확장돼 열사들의 요구는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열사 정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열사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모호한 의미로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열사 정신의 기본은 인간해방을 위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투쟁, 인간(민중)에 대한 존엄,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맞선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열사 정신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중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고 확대되어 제도화하고 장애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평등 세상을 향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진보 장애인운동의 모든 투쟁이 열사 정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곧 열사 정신이며,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모든 행동이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열사단은 장애 민중 가운데 열사들을 기억하게 하고 장애인 주체들이 비장애중심 사회를 장애 관점으로 사회를 변화시켜내도록 그 투쟁의 현장에서 열사가 다시 살아내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우선 열사의 삶을 찾아내고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장애 민중이 장애해방열사와 희생자들의 정신을 투쟁의 현장에서 계승하고 그것이 마침내 역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추모제를 다양한 문화형식과 다양한 방식의 장애인 당사자 언어로 열사를 추모할 것이다. 언제나 저항하고 투쟁하는 현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의 다른 소수자와 인간해방을 위해 지속해서 연대해나갈 것이다.

4. 나에게 열사란 누구이고 무엇인가? 왜 추모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필자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열사와 희생자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해방열사·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한 나의, 우리의 행동은 차별과 배제로 둘러싸인 이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 열사들이 한결같이 원한 것은 ‘이대로는 아니다’였다.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사회 때문에 그분들은 죽음으로 저항했고, 또는 죽음을 맞았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1842일 동안 진행했던 광화문역 농성장에는 장애등급제로 희생당한 고 김주영 동지를 시작으로 열아홉 분의 영정이 길게 놓였다. 고 김주영, 김준혁 등 우리와 같이 장애인운동 과정에 함께 뒀고 숨 쉬었던 동지도 있고, 고 박지우, 박지훈, 박진영씨 같이 죽음 후 우리의 운동에 함께한 분도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 있던 열아홉 분의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이었고, 사회적인 타살이었다. 우리는 장애인운동의 의제에 따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던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를 지냈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제 또한 매년 지내왔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을 투쟁으로 바꿔냈다.

최정환 열사를 나는 잘 몰랐다. 어느 날 정체불명이던 그의 무덤을 찾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분의 삶을 거의 몰랐다. 어렵게 찾은 그의 묘지에 추모제를 치르러 가야 했다. 용인천주교공원묘지 어디쯤에서 만난 그분의 묘는 거의 허물어진 초라함 그것뿐이었다. 마치 그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럽고 억울한, 한 많은 울음처럼 그렇게 작았다. 장애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너희들이 나를 지워버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이 먼저 장애 있는 몸을 불덩어리로 지워버린 그 열사가 오랜 세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은 채 그곳에 있었다. 그의 외로움, 서글픔이 하얀 국화가 되어 묘에 가지런히 놓이는 것을 보며, 이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의 삶이란 이렇게 아픈이었다. 최정환 열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일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이기에 노동할 수 없었고, 노점상이라도 먹고살려고 했지만, 이 사회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저항하고 싶어도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오직 장애 있는 몸으로 죽음으로써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한다.

5. 열사정신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장애해방열사_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대표를 맡으며 시작했던 나는 추모제만 많이 치른 것 같다. 이제 와 다시 돌아보니 활동하면서, 그 많은 장례식과 추모제를 치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잘못된 사회구조에 의해 희생당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있기에 더는 사회적 타살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

최정환이라는 장애인의 삶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름만 다를 뿐, 지금 여기 설요한이라는 한 장애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최정환 열사가 장애 때문에 느꼈던 절망은 사라지지 않고, 고 설요한에게 외로움과 눈물로 그리고 다시 죽음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는 최정환의 삶이라는 절망의 무덤에서 설요한이라는 절망의 무덤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다. 어떤 이의 죽음이 마침이 아니라 절망의 죽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절망 속에 죽음의 고리를 끊으려면 투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항하고 저항하는 현장에서 죽음은 다시 삶이 되고 희망이 된다.

장애 있는 나의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 투쟁 현장에서 피어나던 향의 냄새를...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죽음이 무엇을 바라고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장애해방, 인간 해방을 향한 투쟁을 바란다.

| 토론 1 |

열사란 누구인가?

이창훈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우리가 부르는 ‘열사’는 보훈처에서 정의하고 ‘열사의 개념’과 확연히 다르다. 보훈처에서는 ‘열사’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주로 맨몸으로써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강력한 저항의 뜻으로 자결을 선택한 분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는 ‘무력으로써 항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려는 뜻을 지녔던 분들이고 살아계신 분에게도 붙이기도 한다.’ 등 열사 외에도 지사 의사를 더해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열사 외에 희생자 활동가 선생 동지 민주인사 통일인사 등 추모(기념)사업회 별로 별도의 호칭을 정해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열사는 누구인가? 먼저 그 기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모시는 열사들의 첫 저항의 대상은 외세였다. 1894년 고부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 반봉건’을 내세우며 민족자주국가를 세우려는 투쟁이었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범국민추모제에 동학농민운동 영령들을 위패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사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지속되었으며 1945년 원자탄 두 방으로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민족자주국가 수립의 꿈은 다시 요원하게 되었다. 남한의 새로운 점령자로 등장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자주세력을 지지하기는커녕 친일민족반역세력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끌어들이면서 한반도 점령의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946년 10월 민중항쟁, 1948년 제주 4.3항쟁, 그리고 한국전쟁 종전 후까지도 이어진 빨치산들의 투쟁도 우리가 모시는 열사들의 투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열사의 개념을 정립한 상황이 아니었다. 좌우의 이념대립으로 참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열사를 돌보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연좌제처럼 열사를 감추거나 지워야 했던 적도 있었다. 열사를 기억하는 일만으로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금단의 영역을 깨뜨린 것이 바로 전태일과 그를 따른 노동자들이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당시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길들었던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지식인들과 사회지도층에는 자신들이 독재권력에 눌러 숨죽

이고 산 것에 대해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변호사 조영래는 전태일의 일기를 보고 놀라 ‘전태일 평전’을 펴내게 되고, 어머니 이소선은 아들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청계피복노조의 건설과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은 전태일을 자기 삶의 증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독재권력과 그 비호 아래 성장한 자본가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약화되지 않았다. 더불어 함께한 사회운동도 나날이 성장해 갔다. 똑같은 군사독재정권인 전두환으로 그 권력이 넘어갔지만, 박정희의 몰락은 열사들의 투쟁을 잇기 위한 민중들의 저항에 기인한 것이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또 다른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반미의 무풍지대’ 한반도 이남 땅에 살던 민중들은 5.18영령들의 투쟁과정에서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한, 그때까지만 해도 친절한 우방국가로 알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식민지 해방군’과 ‘한국전쟁 우방국’은 ‘미국’이라는 등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6월항쟁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4.19혁명에 이은 민중항쟁의 큰 승리였지만, 야권의 분열로 군사독재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3당 야합으로 들어선 김영 삼정부는 ‘문민정부’라는 대문을 걸고, 금융실명제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하나회 숙청 등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적폐를 쓸어버리는 듯했으나 기우로 끝나고 말았다. 그 사이 민중들은 또다시 열사투쟁을 벌여야 했으며, 열사투쟁은 전 부문에서 벌어졌다.

IMF사태는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뿌리박은 사건이었다.

IMF 사태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수출주도형 자본집약형 경제 정책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었다. 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민중들은 평생을 일해 온 직장에서 거리로 내쫓겨야 했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개방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뿌리박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노동자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특히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져 투쟁에 따른 손배가압류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열사는 그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의 열사는 권력에 만취한 극악무도한 분단 군사독재 정권과 돈벌이에 혈안 된 자본가들과의 투쟁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열사의 삶은 항상 참여한 생활전선에서 벌어졌다.

열사들의 투쟁은 한 사회 한 시대에 속한 투쟁이 아닌 인류 역사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한 ‘민중투쟁의 유형’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스멜저(Neil Smelser, 1930~2017)는 집합행동을 “기존의 규범, 제도, 정책, 가치 등의 변화(때로는 보수)를 지향하는 다수 개인들의 신념에 기초한 적극적인 공동행동”으로 정의한다.

또,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avid Émile Durkheim, 1858~1917)의 “이타적 자살은 한 집단의 이념구조와 강력하게 결합된 개인들이 그룹에 완전히 흡수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살은 선택성과 자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결합된 정도가 강하고 동시에 사회의 암묵적 권유와 찬양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학자들의 두 가지 유형의 표현은 우리 열사들의 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김상진, 1975)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그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덕인, 1995)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배달호, 2003)

결국, 열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모순이 발생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러한 열사들의 죽음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으며, 열사 투쟁 과정에서 그 모순은 하나둘씩 극복되어 온 것이다. 열사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을 창출했지만,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 태안화력 김용균, 택시노동자 김주중·최우기, 지난 3월에 장례를 치른 마사회 문중원 기수 등 열사들이 자신이 아닌 우리 집단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만 것이다.

우리의 열사들은 위인이나 영웅이 되기 위함보다는 삶의 가장 첨예한 부분에서 민중의 고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벌이다가 쓰러져간 것이다.

죽음을 만드는 사회에서 개인적 죽음이란 없다

권미정 | (사)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삶과 죽음은 인간사회에서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죽음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새도 없이 주어지는 죽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상황과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 선택하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와 남겨진 이가 함께 하는 투쟁을 하며 열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결의로 선택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 시간도 없이 덜컥 삶이 끊겨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죽음을 만드는 사회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다

“서울시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하라, 노조탄압 중단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열사와 희생자의 주장과 구호만 달라질 뿐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구호와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며 외쳐집니다.

△ 선택권을 없애는 노동과 사회보장시스템은 목숨을 빼앗는다

“2020년 5월 22일, 26세 김재순은 대형 파쇄기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는 작업 중 파쇄기의 회전 칼날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당시 김재순은 이틀째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다른 노동자가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현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고 김재순은 사망 70일 만인 7월 30일에 노동사회장으로 영결식과 노제를 가졌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사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 김재순은 2018년 2월 조선우드 공장에 취직하여 1년 2개월간 일하다 너무 힘들어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 3개월 후 다시 입사하여, 삶의 마지막 10개월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은 청년노동자-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장애인-위험이 반복된 사업장의 노동자-안전설비조차 없는 사업장 노동자의 사고였습니다.

△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권리가 없는데, 노동은 안전하지 않다

“2018년 12월 10일, 24세의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 어두운 작업장에서 혼자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기

계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구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작업지시서에는 기계를 멈추지 말고 점검하라고 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점검구 안에 있는 컨베이어벨트나 로울러에 근접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요구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작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야만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비용과 저울질되어 개선되지 않았고 부모님이 사준 양복과 신발을 신어보며 웃던 김용균은 입사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원하청구조의 문제점을,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원청의 문제점을, 비용과 이익만 생각하는 사업주의 문제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 자살, 개인적 선택이 아니다

“2016년 3월 14일 유성기업의 일상적인 노조탄압과 일터 괴롭힘으로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년간 싸움 끝에 그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부산경마장 기수였던 문중원 조합원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사는 고 문중원 기수가 개인적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음해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김일두씨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계를 내려고 간 날, 자신을 괴롭히던 작업 관계자를 만났고 그날 회사 근처에서 자살했습니다. 유족의 투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소송을 했습니다.”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살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몰아가고 있습니다.

2. 선택하지 않았으나 사회가 만든 죽음들입니다

개인적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남겨진 이들의 몫입니다.

△ 누구를 추모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체제 변혁을 위해 싸우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더 많은 평등과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이들, 개인의 삶을 꾸려가다가 문제를 느끼고 요구하다가 절망하고 삶을 끝내버린 이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삶이 끝나버린 이들...

△ 죽음을 사회적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들 중 기억되고 추모되는 이들과 묻히는 죽음이 있습니다. 고 김용균의 사고가 있던 일터에서도 같은 죽음이 반복되었지만 기억되지 못합니다. 유족이나 동료 등 남은 이들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싸우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왔던 투쟁 과정은 죽음을 사회적 것으로 만들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유족이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개인 가정사로만 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죽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죽음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투쟁했는가와 별도로 이후에 어떻게 이어가는가와도 이어집니다. 추모와 기억은 살아남은 이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사회적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과정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다 어떤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났는지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읽히고 기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책으로든, 투쟁보고서로든, 조사보고서든, 추모집, 기록영상이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고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이 지나서라도 한 생명이 어떻게 스러져갔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은 어떠한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공유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조형물을 건립해도 좋고 추모제여도 장학회여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후 유족의 의사에 반한 추모비 건립 장소는 의미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제주 남영호침몰 추모비는 사회적 반발에 밀려 정부가 세우기는 했으나 이후 추모비를 옮겨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추모비 건립도 사회적 투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투쟁의 의미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갑시다. 우리는 추모하며 투쟁합니다. 기억하며 요구합니다. 그 각각의 투쟁은 문제를 남기기도 하고 과제를 풀기도 하고 제도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의 투쟁을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남기게 되겠지만 투쟁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것이 바뀌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지속되는지를 남기고 주기적으로 변화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공유되는 것 자체가 함께 투쟁한 이들과 연대를 이어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 사회적 죽음을 현재의 운동으로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전태일 정신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만큼 운동의 여러 갈래에 따라 열사의 삶과 정신이 다시 해석되고 토론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공유하고 확산하고 변화를 확인하고 다시 문제를 설정함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열사들이 요구하고 투쟁했던 목소리, 희생자들로부터 우리가 찾아내고 밝혀내야 하는 숨겨진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열사와 희생자들의 사회적 죽음을 통해 현재의 운동 주체와 연대를 더 커지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탈시설 장애인의 죽음

조민제 |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2020년 8월 1일 토요일 오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화로 전해졌다. 1981년 26세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35년을 살다 2017년에 탈시설하여 대구의 장애인자립주택에서 생활하던 최현창님이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포크레인과 충돌하여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의 나이 64세였다. 탈시설하여 자립생활을 한 시간은 4년 남짓의 시간이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의 충격적인 죽음에 비통함을 느끼는 것은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그의 가는 길을 지원하는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필자는 최현창님의 장례를 총괄한 활동가로서, 장례를 치르며 느낀 우리 사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한다. 우리가 느낀 문제점을 바꿔나가는 것이 고인과 함께 지역에서 함께 살아온 동료로서, 장애인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의 책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해서이다.

1. 발급받지 못한 사망진단서 원본

고인의 비보를 듣고 활동가들은 고인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모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 구석 침대 위에 고인은 천에 가려진 채 주검이 되어있었고, 경찰은 고인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 입장에서는 장애인자립주택이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니 계속 질문을 되풀이 했고 우리는 거듭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을 보냈다. 간단한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우리가 가족관계가 아니니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할 거라며 사본을 한 장 건네주었고 월요일에 구청과 통화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명함을 건넨 뒤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고인의 빈소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 장례식장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병원들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빈소를 마련한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렵다는 답을 주었다. 고인이 가는 길 동료들이라도 많이 만나고 떠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접근성이 좋은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몇 군데 전화연락을 돌리던 중 가까스로 모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 마련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시신을 이송하였다.

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무연고자로 시설에서 탈시설한 분이었다. 대구시가 장애인자립주택에 입주자로 심의 선정하여 입주하신 분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자립주택은 그러하지 못했다. 우리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들고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몇 번에 걸쳐 월요일에 사망진단서 원본, 검사지휘서 원본을 대구시립화장터에 제출할 수 있음을 다짐해주고 빈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만약 월요일에 화장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면, 한달간 화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며 말이다.

2. 주말, 공휴일이면 죽음도 피해야하는 것인가?

우리는 장례식장 사무실 측에 수차례 구청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변수라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기에 구청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장애인담당부서가 관련 업무 지원을 해줄 뿐, 무연고자 사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휴일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닿기도 어려웠고 모든 행정은 월요일에 재개하니 오전에 최대한 일찍 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여 듣게 되었다. 우리는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인이 생활했던 거주시설에 무연고자인지를 확인했고, 무연고자의 장례를 우리가 주관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있는지 작성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은 월요일에 되어서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고인의 장례는 3일장을 예정하고 있었고 월요일 오전에는 서류가 신청되고 조치되어야만 발인과 유골 안장이 가능했다. 그렇게 비통함 속에 장례식이 진행되며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우리는 몇 차례 서류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챙겨야만 했다.

3. 무연고자라 했으나 무연고자가 아닌 사람들

뜬눈으로 맞이한 월요일 오전, 아침 8시가 조금 지나 구청 무연고자 사망업무 담당자를 찾아갔다. 주말 동안 조금이라도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담당자는 업무를 확인하고 파악하는데 1시간가량의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고 있었다. 담당자에게 탈시설 당시 무연고자로 정보를 인계받은 점을 알려주고 연고자 조회부터 빨리하자고 이야기했다. 확인절차를 거치며 예상했던 변수에 뒤틀린 상황이 일어났다. 고인에게 형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탈시설 절차상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 발달장애인이든 그가 생전에 연고자 조회를 위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해볼 일이 있지도 않았다. 개인정보가 담긴 사항이라 이를 단체가 지원하여 발급하러 가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일이었다.

연고자가 확인되었기에 즉시 장례일정을 조정하고 연고자와 협의를 준비했다. 그러나 우리가 연고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사고사인 경우 연고자와 연락을 경찰이 진행, 병사 또는 자연사의 경우 연고자와 연락을 구청이 진행)이 연고자에게 시신인도 의사를 확인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오후에 경찰에서 연고자의 시신인도 의사 포기를 확인하고 구청으로 무연고 시신 업무를 이관한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인의 발인은 가까스로 화요일이었던 8월 4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4. 고인의 돈으로 고인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

생전 고인은 자립주택에 생활하며 1인 1실에서 생활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생활에 불만을 자주 표현했었다. 그래서 그는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자립생활정착금과 생계급여를 아끼고 모아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었다. 그렇게 4년 만에 1,900여만 원의 예금을 모았다.

그런 그가 불의의 사고로 황망히 떠나며, 그와 관계했던 단체 회원, 자립주택 동료, 활동가, 활동지원사들의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함께 장례를 치렀다. 장애인 접근성이 가능한 장례식장에 그렇게 크지 않은 빈소를 마련하여 보통의 장례처럼 진행했다. 장례용품도 기본형으로 주문을 했음에도 7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었다.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고인의 돈으로는 장례비용을 치르지 못한다고 했고, 그 돈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연고자 등 상속권을 가진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끝내 장례비용은 모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방면으로 장례비용집행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여 봤지만 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는 장제급여 또는 개인예금에서 80만원을 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비용도 집행할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 사회적 관계가 여러 방면으로 맺어진 고인과 같은 경우는 지인과 단체의 뜻으로 돈을 모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0만원 한도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인의 장례를 치르며 우리는 ‘탈시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의 고인의 마지막 길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현행 제도와 법률, 행정시스템의 한계를 되짚어볼 수 있었다. 대구에서는 법률가들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을 준비 중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갈망했던故최현창님을 기억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마지막 길이 조금이라도 가벼울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토론 4 |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지원 및 돌봄 지원의 부재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강요였다

윤진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자발적, 비자발적 죽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모든 죽음에 대한 배경을 모두 알 수는 없겠으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지난 2016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한 장애인자살예방을 위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장애인가족의 자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에 대한 연구는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수행되었으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다. 위 연구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장애인 자녀(18세 미만)를 살해하고 24시간 내에 부모 본인 또한 자살한 21개 케이스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26명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이 살해되었고, 그중 81%가 남자, 54%가 자폐성 장애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30%는 정신질환이 있음을 보고했으나, 이외에 다른 잠재적 동기는 밝힐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가족구성원의 자살 혹은 장애인 자녀와의 동반 자살 문제는 심각하나 실제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정신질환과 자녀의 장애유무가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 사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에 대한 기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에 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의 내용 중 자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영문도 알 수 없는 가장 의지하는 자로부터의 살해를 당한 것이고, 그 가족은 살해 후 자살한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다만, 각각의 죽음이라는 결과의 현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 관련 언론기사 〉

연번	기사명	장애유형	자살원인	게시일
1	안타까운 두 정신지체인의 죽음	지적장애	신병비관	2003-07-09
2.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 숨진채 발견	정신장애	만성적 빈곤	2006-01-23
3.	장애인모자 '생활고 비관' 동반자살	중복장애(정신장애 및 뇌병변장애)	만성적 빈곤	2007-09-13
4.	장애아들 농약 먹여 죽인 아버지 구속	발달장애	만성적 빈곤 및 양육문제	2009-03-19
5.	돌보기 힘들어..40대, 생활고에 장애인 동생과 자살	중복장애(지체장애 및 정신장애)	만성적 빈곤 및 돌봄문제	2012-02-02
6.	40대 아버지, 10대 자폐아들 살해 후 자살	발달장애	양육문제	2013-12-3
7.	장애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60대 집행유예	지적장애	만성적 빈곤 및 양육문제	2014-01-16
8.	발달장애아동 둔 일가족, 또다시 목숨 끊어	발달장애	양육문제	2014-3-16
9.	지적장애 1급 언니 홀로 돌보던 20대 자살	지적장애	만성적 빈곤 및 돌봄부담	2015-01-26
10.	'자녀 돌봄으로 힘들었다' ...발달장애부모 또 '자살'	발달장애	정신과적 증상 및 양육부담	2015-02-05
11.	정신지체 장애 형 돌보던 동생 형 죽인 뒤 투신,,, 생활고 비관	지적장애	만성적 빈곤 및 돌봄부담	2015-03-09
12	울산 60대父, 지적장애인 20대 딸 함께 숨진 채 발견	지적장애	만성적 빈곤 및 돌봄부담	2016-03-29
13.	서울 발달장애인 부모 아파트 투신	발달장애	돌봄부담	2018-11-15
14.	코로나19 발달장애가정 비극, "사회적 죽음"	발달장애	코로나19 및 돌봄부담	2020-03-18
15.	중증장애 아들과 어머니, 코로나19가 앓아갔다.	발달장애	코로나19 및 돌봄부담	2020-06-04

△ 재난과 같은 죽음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죽음 중에 그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요소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여 죽음을 당하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 죽음은 한순간에 재난과 같이 찾아온다.

〈 발달장애인의 사망 관련 내용 〉

연번	제목	장애유형	사망원인	시기
1	대구 장애아동 치료실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사망	발달장애	과잉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묶어 방치, 경추 1,2번 탈골에 의한 척추 손상으로 사망	2010-01
2.	파주 남매 화재로 사망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사망	2012-10
3.	충남 청양군 한 주택화재로 50대 여성 사망	발달장애	화재로 인한 사망	2019-8
4.	광주 북구 아파트 화재로 20대 발달장애인 사망	발달장애	화재로 인한 사망	2019-10
4.	엄마가 빨래하는 사이에..발달장애 초등생 11층서 떨어져 숨져	발달장애	추락사	2019-12
5.	4개월 영아 살해한 뒤 거짓 신고한 친모 구속	발달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 걱정돼 살해	2020-04
6.	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추락사	발달장애	추락사	2020-8
7.	자택에서 부모가 다른 일 하는 사이 베란다에서 추락사	발달장애	추락사	2020-9
8.	가족 모두 잠든사이 자택에서 추락사	발달장애	추락사	2020-10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살이나 재난과 같은 사망은 분류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모든 죽음이 재난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반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강요된 죽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오래전부터 '장애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 이것은 부모가 아닌 국가의 복지지원체계에서 발달장애자녀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일방적인 가족의 의무와 의지, 인권, 책임 등만 강요되어왔다. 가족의 책임은 무한했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차원의 지원은 미미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복되는 죽음이 언론에 한번 기사화되면 반짝 신경 쓰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일회성 가십거리에 그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과 죽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만을 수립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에 더는 고통을 주지 말고 죽는 게 어떨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강요라고 할 수 있다.

△ 나가며

본 토론문을 쓰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토론자가 직접 대응한 사건부터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유형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토론문을 작성하는 중에도 언론에는 전혀 기사화되지 못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최근의 반복된 죽음을 코로나19에 따른 고립과 가족에게만 전가된 돌봄 책임으로만 정의하기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된 적이 없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 사회적 거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만들어왔다. 특히 일상에서의 고립과 배제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에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대부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기관의 휴관으로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발달장애인부모와 발달장애인을 지원을 담당하던 형제자매 등 가족의 자살 및 발달장애인의 살해문제는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었던 돌봄 부담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누적된 돌봄 부담은 부모 및 가족의 정신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 및 가족 건강 생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으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10점 '매우 심하다', 1점 '전혀 어려움이 없다'로 설문한 결과, 발달장애인과 부모는 각각 평균 7.23점, 7.9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보다 부모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87.8%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정도와 유형의 차이가 있지만, 도전적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도 '지속적인 지원/돌봄으로 피곤하다'가 73.7%,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가 48.2%, '수면이 불안정하고 명할 때가 있다'가 46.7%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자녀 지원/돌봄으로 인해 건강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종합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촘촘히 확인하고 지원한다면 적어도 가족에게만 전가된 돌봄 부담을 조금은 나눠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복지, 노동, 문화예술, 여가 등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더 이상 돌봄 부담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노점상 장애인 열사의 희생과 투쟁

최인기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1. 들어가며.

우리 현대사는 죽음으로 점철된 투쟁의 역사였다. 분단과 군부 독재체제, 반민중적 수탈에 맞서, 하나뿐인 생명을 던져 투쟁을 일구어 온 열사 한분 한분이 고스란히 운동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운동사적으로 지대한 영향들을 미쳤고, 현실 운동에서도 그 영향을 지속시키고 있다. 소위 한국 사회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생자분, 수많은 열사분이 계실 거라 짐작되지만 이 글은 모든 분을 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자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가꾸어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 위하여 빈민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열사분을 살펴보고, 각각의 투쟁이 담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와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생자분을 추모하고 현시기 열사 정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빈민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 열사정신과 도시빈민투쟁.

1) 열사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래로 OECD 회원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살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료상 문제로 축소 보고되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생계형 자살자들이 많다는 것은 비록 열사라는 칭호를 받지 못할지라도 이 사회 가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노점상과 철거민을 중심으로 도시 빈민 투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열사분은 용산참사 이후 박단순 열사, 박준경 열사 그리고 2019년 용산참사 생존자 고 김대원 님 등 약 55명가량 된다. 이들은 대부분 80년대와 90년대를 넘어 2천년대 들어서 용산참사와 최근까지 죽음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특정 정세에 맞춰 희생당한 분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집계되었으며 아직 우리 사회가 열사라는 개념을 둘러싼 운동적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당하신 분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그 숫자는 가능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빈민 열사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시대 희생자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장애인노점상 열사투쟁 현황

1980년대 군부독재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추진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 개최와 맞물려

환경미화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노점상 삭쓸이 단속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노점상들은 자신의 대중조직을 건설하고 투쟁을 통해 도시빈민운동 조직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의 밑바탕에는 시기 열사들의 투쟁이 있었으며 이들의 희생이야말로 실질적인 조직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간략하게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점상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최초의 열사 투쟁은 1989년 10월 경상남도 거제의 이재식 열사 투쟁이다. 열사의 시신을 서울로 모셔와 조직적 결합과 단결로 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사회 이슈화시켜냈다. 이러한 투쟁을 밑바탕이 되어 김영삼 정부 들어 1995년 3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최정환 장애인 노점상 열사 투쟁이 전개되었다. 열사 투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시기 사회적 배경이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퇴조기라는 객관적인 정세였지만 반면 한국의 노동운동을 운동의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등 기층 대중조직과 시민운동의 등장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절차적이고 제도적 민주주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이라는 조건이었다. 최정환 열사 투쟁은 조직적으로 노점상과 장애인이 결합하여 전개된 투쟁으로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렷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와 장례식 날 연세대 정문 앞에서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김영삼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정권 퇴진으로 나가는 투쟁이었다.

투쟁에 결합했던 사람들은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청계천 일대와 인천의 아암도에서 장사를 하던 중 1995년 11월 인천의 아암도에서 장사하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가 상의가 벗겨지고 구타당한 흔적이 보이는 상태에서 밧줄이 느슨하게 몸에 묶인 채 발견되었다.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곧바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꾸러지고 대대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덕인 열사가 안치되어 있던 영안실 침탈과 다수의 구속자가 발생하는 등 1996년 종순까지 투쟁이 전개되었고, ‘노점상의 생존권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저지’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도 1999년 대전역 지하도에서 장사하던 장애인 노점상 윤창영 열사 투쟁은 민간용역반에 의한 인권 유린에 저항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지만 결국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는 용역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렷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성과로 대전지역의 연대 운동에 영향을 끼쳐 지역 운동체가 결성되기도 하였으며 빈민운동조직의 연대체인 ‘전국빈민연합’이 재결성되기에 이른다.

2002년에는 뇌성마비 1급 장애여성 노점상 최옥란 열사 투쟁이 전개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정책’이란 이름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법은 빈곤선 이하의 가난한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여성으로 장애인이며 청계천 노점상이고 한부모 가정을 이루고 살던 최옥란 열사는 이 법이 가난한 이들의 삶의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을 고착화하는 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돌아갔다.

이밖에도 장애인 노점상의 희생과 피해는 이어졌다. 1996년 부산의 장애인 노점상 이동재 씨는 분신 후 사경을 헤매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례였으며, 1997년 노점상 양승진 열사, 그리고 1998년 종로 5가의 장애인 노점상 전창욱 씨, 2002년 단속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은 부산의 장애인 노점상 하재명 씨가 있다. 한편 청계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소속 정태수 열사 박홍수 열사 등이 있다. 특히 2002년 8월 청계천 노점상 박봉규 열사 투쟁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의해 진행된 도심부 뉴타운 재개발사업들 소위 신개발주의 프로젝트 성 사업들로 인하여 저소득 도시 빈민들이 삶의 터전이 밀려나는 상황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 투쟁의 성과로 당시 양분되어 있던 노점상 단체가 통합하는 내부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2005년 부천역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장애인 노점상 부부, 같은 해 국회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장애인 노점상 황효선 씨, 2006년 부천에서 분신자살한 장애인 노점상 주수길, 최근 2012년 남평화시장을 통해 확인된 1995년경 한 장애 노점상 이홍복 씨(남 당시 장애 2급) 장사를 하다가 불에 탄 박스 안에서 발견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많은 분이 노점상이면서 모두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점상을 하다 숨겨졌으며 그리고 용역 깡패라는 사회 구조적인 폭력의 희생자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3. 몇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노점상과 철거민을 중심으로 빈민운동 진영은 1998년 빈민 열사 추모제 개최를 시작으로 비정기적으로 추모제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노점상 단체는 추모사업이 진행 중인 이재식 열사와 윤창영 열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이덕인 열사 그리고 빈곤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최옥란 열사와 최근 묘역이 확인된 최정환 열사 추모제에 결합하고 있다. 노점상 장애인 열사의 추모는 2010년 장애해방열사_단 활동을 통해 추모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열사분은 개별 열사 추모 행사나 묘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친 측면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몇몇 유가족을 제외하고 점차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노점상 빈민운동의 특성상 열사와 희생자의 투쟁을 통해 조직이 유지되고 확대 강화된 측면이 커 이에 대한 역사적 활동과 열사·희생자 자료 정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각각의 ‘빈민 열사 추모사업’의 복원과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가족 간의 상호소통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덕인 열사 사건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의 폭력이 인정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결정되었다. 이유는 ‘노점상 단속 행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덕인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개별화되어 있거나 현안에만 머무는 열사 추모사업을 계승, 발전시켜내야 할 것이다.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했고, 시간이 흐른 만큼 열사 정신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각 단체는 조직의 주요 사업으로 열사 사업을 설정해 정신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열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문제,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열사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 등의 구체적인 사업과 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합법적 공간이 확대되면서 열사들의 죽음, 그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회복과 정신 계승사업도 제도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제도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열사들의 정신이 과거의 문제로만 인식될 우려도 있다. 현 사회에서 희생되는 이들에 대한 조명과 더불어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사업’은 해당 시기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빈민, 반빈곤 의제들의 흐름과 운동의 원칙과 저항의 정신을 살려내고 바로 세우려는 치열한 투쟁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제약되어있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사회권 일반으로 넓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 의문사)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어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조명은 역동적 미래로 이어지는 열쇠다. 열사 정신계승 투쟁과 현안 투쟁을 병행할 것을 다짐하며 일보 전진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자.



수구세력 심판
총선민심의 힘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LIVE 2020. 10.16 (금) 14:00
bit.ly/열사추모

-추모위원 모집
문의 02-716-7565 담당 010-3005-9638
yolsachumo@hanmail.net
-추모기금 납부계좌 (1인당 2만원)
국민은행 827901-04-017101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장애해방열사_단 10주년 기념 토론회
추모, 2020 그 의미를 묻다**

발행 장애해방열사_단

발행일 2020년 10월

편집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